고정된 게 없기에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구름 같고 바람 같은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답변 그런데 부모다 자식이다 이런 데 연연하고 애착을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하지마는 억겁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가 도둑질은 안 했겠습니까? 생명을 잡아먹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까? 모자라지는 않았겠습니까? 병신은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 모자랄 때 내 모습으로 보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과거에 잘못한 내 모습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기가 없어지고 유하게 부드럽게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둘 아니게 보라는 거죠.

부모 자식이다 할지라도 한 철 부모 자식이지 그 한 철이 지나면 그대로 뿔뿔이 몸도 다 놓고 갑니다, 제가끔. 원점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또 생(生)해서,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올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또 출현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되죠.

이건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넓게 생각을 할 때 내 부모 아닌 게 어딨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찰나에 인생이 가고, 한 찰나에 인생이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요 한 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놀러 갔다고 합시다. 모여서 놀러 갈 때는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즐거웁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다 뿔뿔이 자기 갈 데로 다 헤어지고 그 자리조차도 내놓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섭류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저 혹성이나 핼리혜성이나 또는 어떠한 별성이든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섭류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래로 쭉 내려다보세요.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토끼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짧고 그렇지만, 수명이 아주 긴 것도 있고 수명이 아주 짧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길고 짧고 길고 짧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열 달이 돼야만 낳지만, 6개월 만에 낳는 것도 있고, 석 달 만에 낳는 것도 있고, 몇 주일 만에 낳는 것도 있고 그거는 여러 층으로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자면 기술자끼리 모이고, 농사꾼은 농사꾼끼리 모이고, 배를 타는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여서 살듯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현상 속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다 놓아 버리게도 하는 그런 장본인인 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으며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수억겁 전부터 생기게 해서 이렇게 인간까지 이끌어 왔는데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스님들의 고깃덩어리인 몸뚱이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 법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선 쑥 내밀었단 말입니다.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시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내 중심입니다, 중심! 팔뚝! 중심! 이거는 (주먹을 폈다가 쥐어 보이시며) 오온(五蘊)을 다 쥔 겁니다. 이 쥐었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전부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니 별성이니 달이니, 어느 혹성을 막론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내 살림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며 서로 주고 서로 살리기 때문에, 이 세상 사가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근본은 바로 내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알아야 된다. 나 먼저 발견해야 된다. 나 먼저 믿어야 된다. 나는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넌 누구를 믿느냐?" 하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 하나를 켜 놔도…, 보십시오! 초를 켰는데 한쪽이 기울어지게 타 들어간다면 촛농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위로다 딱 잘라서 똑바로 해 놓고, 기울어지는 것을 똑바로 세워 놓으면 한쪽이 이그러지지 않으니까 촛농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도 마음으로써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고삐를 자기가 쥐고, 남의 파밭으로 들어가면 "파밭으로 들어가선 안 돼. 이랴!" 하고, 딴 데로 가면은 "워 워!" 해서 항상 똑바로 가게끔 고삐를 쥐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 바로 자기 공부입니다.

내 집에 전화를 먼저 놔야 남한테서 전화도 받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다. 인과법칙이라든가 또는 유전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생태의 문제들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를 알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유유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정신계와 물질계를 작용하면서 베풀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냥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굴려서, 이론으로만 쫙 알아 가지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을 떼어 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내 심력을 길러서,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꿇어앉았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섰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뭣고?' 하기 이전에 '만법을 들이고 내는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니까 '그놈이 뭣고?' 하기 이전에 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되돌려 놔라 이 소립니다.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들이고 내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못났든 잘났든 내가 가는 길인데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말로, 이론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을 떼어 놔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내 실력을 길러서
하나하나 터득하면서 체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동생이 빙의된 것 같아요

질문 제 생각엔 제 동생이 몇 년 전부터 빙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서 딴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끔씩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 집안인 가족들은 제 말을 무시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잘 낫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살펴 줘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치악산에서 내려와서 여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관 그 주인이 나를 잘 알고 덕을 봤다고 참 고마워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네 사무실 방에 인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누구가 혼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어머니더러 하는 소립니다. "야, 이년아! 네가 재산에 미쳐서 아무개도 이렇게 죽이고 아무개도 죽이고 아무개도 죽이고, 죽여서 죽인 게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선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이 얘길 왜 하느냐 하면요, 요것도 바다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접시의 물 가지고도 바다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요만한 탕깨에다가 꽃 한 송이 꽂아 놓고 선 물을 담아 놨습니다. 물을 담아 놓고 가만히 앉았다가 '여기 봐라. 여기로 가면은 너무나 좋다.' 셋을 다…. 그냥 승천을 하는데 '너희, 일로 들어가 봐라.'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들여다보다 도로 저거하고 요렇게 들여다보다가, 아리송하니깐 그러는데, 금새 큰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돼서 그냥 연꽃이 피고 그 길이 얼마나 섬세하게 됐는지 고만 셋이 다 그냥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얘기예요. 보이는 데서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얘기란 말입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승천을 하듯이 거기서 반기고 모두 한마음으로 들이니까 인제 얘는 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성한 사람으로서 한 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챙피하니 못 오는 거예요, 모두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위법이라는 거, 유위법이나 무위법이나 둘 아닌 도리가 이렇게 광대무변하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못 하느냐. 관습과 습관이 있어서,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난 못 한다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려 놓지 않고도 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차려 놓고 하시냐고 하실 테지만 그게 방편이다 이겁니다, 제 삼자를 위해서 방편.

어떤 때는 신도님들이 "그냥 스님께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굳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이게 더….' 이게 더 책임이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러나 우리 스님네들도 책임이 중대하거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게 항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네들한테 말하고 가면은 그렇게 일이 성사가 되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자기 아닌 자기가, 벌써 이게 비유하자면 원자가, 원자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보살행을 한다 이겁니다.

아파서 금방 저거 하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약사보살로다 행을 하고, 또 안되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로다 행을 하고, 명이 짧은 사람은 칠성부처로다 행을 하고, 그래서 그 보살들은 바로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받아서 그냥 하기 때문에 '대행'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모두들 여러분들도 그 이름, 그 대행이라는 건 이름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지 여러분들은 다 이름 없는 이름입니다, 그게 다. 이름이 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부처로 돼 있다면 그게 어딥니까. 부처라는 건 이 세상을 다 집어먹고 이 세상을 다 집어서 내주고 이러는 게 부처거든요, 아니 되는 게 없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도리를 모르니까 떡이나 하나 해 놓고 지낸다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허허허. 그 떡 하나만 놓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지낸다면 먹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령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하듯이 내 마음인데 물에 빠질까 봐 강을 못 건너가리까,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가리까, 또는 지옥이 돼서 못 건너가리까.

아이, 이 여기 문이 꽉꽉 다 닫혔다 하더라도 벽도 없고 봇장도 없어요. 그래서 체(體)을 타고 난 사람들은 고(苦)다. 고를 걸어야 한다. 근데 '고' 하고 '집착' 하고만 없으면, 집착이 고라면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거기다 놓고 가면 '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 죠, 뭐. 그렇게 간편한 거를 그냥 써 놓기를 그냥 갈래갈래, 갈래갈래도 천차만별이죠. 많지만 그거를 다 써 놔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고 어느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만날 형상과 이름을 찾고 기도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다 맘대로 하시고 갈 수 있어요? 하시고 싶은 대로? 몸뚱이는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못 해요, 한계가 있고. 또 아파도 의욕이 없어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도 들죠. 그런데 그 모두를, 간편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대로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그렇게 살고 있다. 왜냐하면 고정된 게 없기 때문이죠. 나라고 할 수도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안 했다 했다를 다 놓고 그대로 공한 거니까, 공한 몸이니까 그대로 가라.

여러분들이 그 도리를 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이해가,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갈까 저렇게 해야 이해가 갈까 하고 중두남발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식으로서 집어 먹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뭐.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